



<노동시장개혁 이슈 리포트 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얼마나 심각한가?

-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고임금·고용안정·좋은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부문(대기업, 정규직, 노조원)과 ‘저임금·고용불안정·열악한 근로조건’이라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가진 부문(중소기업, 비정규직, 비노조원)으로 분단된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추세임.
- 2014년 4월 현재, 대기업 소속으로 노조원이면서 정규직인 근로자의 비중은 전체근로자의 7.47%에 불과함. 반면 중소기업 소속으로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비정규직인 근로자는 전체근로자의 26.4%에 달함.

【이중구조의 요인과 실태】

- 지난해 중소기업(300인 미만 사업체 기준)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대기업(300인 이상 사업체 기준) 근로자의 56.7%에 그쳤음.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2000년대 중후반 급격히 벌어진 뒤 2010년 이후 50%대 후반에서 고착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중소기업 정규직은 대기업 비정규직보다도 임금을 적게 받고 있음. 대기업 정규직이 시간당 2만1568원(100%)을 받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1만4257원(66.1%), 중소기업 정규직은 1만2828원(59.4%),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8779원(40.7%)를 받고 있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단위 : 원, %)

	2012	2013	2014
정규직 근로자	16,403	17,525	18,426
비정규직 근로자	10,437	11,259	11,463
임금격차	36.4	64.2	62.2

*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복지수혜율 격차도 매우 커서,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복지수혜율이 국민연금 35.9%, 건강보험 42.5%, 고용보험 41.7%, 퇴직금 37.6%, 상여금 38.1%, 시간외수당 22.3%, 유급휴가 29.6%에 그친 반면 대기업 정규직의 복지수혜율은 대부분 항목에서 90%를 넘고 있음.
- 유급휴가도 대기업 직원은 93.4%가 누리고 있었으나, 중소기업 직원들은 44.4%만 혜택을 보고 있었음. 특히 임금을 제외한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상당히 열악해서 국민연금 가입률은 35.9%,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도 각각 42.5%와 41.7%에 머물렀음. 유급휴가 수혜율은 30%도 되지 않았고, 노조 조직률도 2.4%에 불과했음.
- 노조의 유무는 임금격차를 더 벌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음. 2014년 8월 현재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은 38.6에 불과해 10년 전의 44.0 보다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음.
- 고용안정성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여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13.1년인 데 비해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에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2.2년에 불과했음.

【이중구조의 문제점과 대책】

-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 근로자들은 법제도의 보호와 더불어 강한 노조의 보호까지 받고 있음.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고착화는 과보호되고 있는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근로자간의 격차를 조장하여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키고 노동시장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보호 완화와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함.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유노조 사업장과 무노조 사업장 간의 질적 차이를 해소하여 양자간의 이동성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관련제도의 개편이 요구됨.

【참고자료】

김훈,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고용법제 개선 방향, 월간노동리뷰 2015.01
 김복순, 사업체 규모별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 월간노동리뷰 2015.0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각월호